

상호부조와 풀뿌리운동

- 아나키즘이 들려주는 지혜들 -

하승우 (지행네트워크)¹⁾

1.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풀뿌리운동을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

(1) 분권과 연방주의

- 아나키즘의 이론적 특징, 특히 분권과 연방주의는 풀뿌리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아나키즘은 모든 형태의 권력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프루동(P. Proudhon)이나 크로포트킨(P. Kropotkin)같은 아나키스트들은 연방주의(federalism)를 주장했다. 프루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원리가 연방주의에서 자연스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각 지방의 자치를 보장하는 분권화된 연방주의만이 시민의 참된 주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프루동은 연방주의에서 권력이 아래로부터 구성되고, 시민이 대표들을 해임하거나 소환하면서 자신들의 일반의지를 실행한다고 주장했다. 크로포트킨 역시 1897년과 1901년 북아메리카를 방문하고 난 뒤에 캐나다와 미국의 연방주의를 지지했다(애브리치, 2003).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은 국가나 권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위로부터 강제로 부여된 국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민중의 의지를 거부하는 국가를 반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크로포트킨은 국가를 부정했지만 권력이 분산된 연방공화국을 지지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非국가연방'을 구상했다(오두영, 2003).

- 풀뿌리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한 지류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로 해석하려면 그것은 작은 지역공동체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는 분권이나 개별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나키즘이 주장하는 연방주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사회모델로 논증될 수 있다.

1)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 『아나키즘』(2008) 저자

(2) 자유로운 정치주체의 성장

- 아나키즘은 특정한 역사법칙을 따르거나 특정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아나키스트들은 역사가 특정한 발전 법칙(역사적 유물론 또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따라 실현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리 그려질 수 없다고 봤고 새로운 사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집단적인 활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은 폴뿌리민주주의가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정치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 정치주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이 그것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은 전위조직이나 비밀집단을 거부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실천을 끌어내려 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식이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믿었기에, 시민을 배제하며 혁명을 준비하는 방식이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을 배제하리라고 믿었다. 더구나 조직은 위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수록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대표자들이 시민의 이름을 빌려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의 효율성이나 엘리트의 필요성보다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중의 역할과 그런 역할을 통한 시민의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 폴뿌리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또한 자기의식을 되찾은 시민이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것에 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성장해 공동체를 이끈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적 가능성과 잠재성을 품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민운동이 일방적인 선동보다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이해를 지향할 때에만 가능하다. 아나키즘은 이런 지적 전통에서 있다.

(3) 고유한 정치논리의 재발견

- 아나키즘은 한국사회의 폴뿌리민주주의의 전통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준다. 보통 폴뿌리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87년 이후 시기만을 다루거나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의 시기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지역적 전통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참여의 경우에는 그런 전통이 더더욱 강조된다(퍼트남, 2000). 그런데 폴뿌리민주주의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런 전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이론연구와 달리 현실의 실천운동은 폴뿌리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을 민초민주주의(民草民主主義)라는 형태로 발전시키기도 했다(민초라는 표현은 동학의 뜻을 이어받아 근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명운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 원

주에서 무위당 장일순과 김지하 등이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이후에 <한살림모임>이나 생명민회운동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런 시도들은 “낭비와 파괴를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기구로부터 가능한 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자치적 ‘해방구’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생활협동운동”(장일순, 2005)임을, “민초들은 스스로 그 무위의 탁월한 자연 생명의 질서를 깨달아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여 나아간다”(김지하, 2003)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풀뿌리민주주의 연구들은 이런 현실의 실천운동 흐름을 자기 연구에 잘 반영하지 못했다.

- 아나키즘은 그 전통을 근대 시기로 확장시킨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수용된 아나키즘은 대종교 계통의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대동사상이나 계나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 공자나 맹자의 원시 유교나 노자의 무치주의(無治主義) 등 한국의 전통사상과 어울리면서 발전했다(안중수, 2006; 하승우, 2006; 김갑수, 2007). 이렇게 내적인 사상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아나키즘은 1930년대까지 주요한 사회운동사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해방 이후에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1945년 9월 해방 직후 만들어진 최초의 아나키스트 단체인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은 “우리는 독재정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의 조선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집산주의 경제제도를 거부하고 지방 분산주의의 실현을 기한다. 우리는 상호부조에 의한 인류일가이상(人類一家理想)의 구현을 기한다”는 강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도 그 맥은 <자유인총연맹>이나 <국민문화연구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전통과 그 맥을 살리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우리 전통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4) 농민공동체와 농민민주주의

- 아나키즘은 자본주의 산업화 또는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농업을 희생시키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농민’이라는 존재에 관해 물음을 던진다. 아나키스트들은 자급(自給)이 가능한 소규모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자급자족의 가장 기본은 농업을 터전으로 삼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갖춰질 수 있다. 먹거리를 자급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농업은 공동체의 자율성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그런 점에서 농업은 단순히 1차 산업으로 분류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 농업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인간에게 깨우쳐 준다. 다른 산업은 자연자원을 짜내서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려 하지만 농업은 자연의 힘을 빌려서 곡물을 생산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유기농업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순환시켜서 자연을 살아있게 한다. 사람의 똥이 논밭의 거름이 되고 그곳에서 자란 농작물을 사람이 다시 먹고 똥을 싸듯이, 농업은 인간과 자연을 연

결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아나키즘은 이런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닌 농업과 그것을 일구는 농민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나키즘은 우리가 ‘농민민주주의’라는 고유의 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묻는다.

(5) 협동조합 ·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 아나키즘을 따르는 협동조합운동이나 대안공동체, 대안학교 등은 한국사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다. 아나키즘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장려해 왔다. 가령 공동육아나 대안학교를 만드는 실천, 생산협동조합이나 소비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촌과 도시의 서로 살림(相生)을 이루려는 실천, 농촌과 도시에 대안적인 마을 공동체를 세우려는 실천, 대안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실천 등 다양한 실천들이 있었고, 아나키즘은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국가를 대신할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프루동(P. J. Proudhon)은 소유를 축적이 불가능한 점유로 대체하고, 협동조합의 건설과 이를 지원할 인민은행의 창립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루동은 노동의 상호성을 보장하는 사회체계를 만들면 농민과 노동자가 서로의 삶을 지원하리라 봤다. 그리고 간디(M. Gandhi)도 스와라지와 스와데시를 강조하며 마을 스와라지를 ‘상호의존적인 완전한 공화국’이라 주장했다.

- 크로포트킨은 《전원, 공장, 작업장》(형설출판사, 1983년)에서 경제학이 어떻게 이윤을 늘릴 것인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포트킨은 그 물음에 “농업이 공업을 성립시키고, 공업이 농업을 지지”하는 통합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5쪽). 이 관점에 따르면, 땅과 인간의 다양성에 발맞춰 공업은 분산되어야 하고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곡식이 재배되고 공업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50쪽). 크로포트킨은 인류의 진보가 자급(producing for home use)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은 소공업(small industries)과 공업촌락(industrial villages)이 “토지경작자가 동시에 공장노동자이기도 했던 옛 제도의 장점”(149쪽)을 살린다면 전체 인류가 넉넉히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농업과 결합해 노동자가 땅을 경작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소공업은 작은 규모의 다양한 발명을 통해 농업의 발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공업과 촌락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지지하며 발전한다. 크로포트킨은 소공업과 농업이 결합된 전원도시 또는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인 결합이 미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은 당시 소농과 지방 소공업의 몰락을 경제발전에 뒤따른 자연스

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몰락을 당연시했던 자본주의 경제학자와 사회주의자 모두를 비판했다. 그리고 토지와 공장으로서의 집중, 도시로의 집중이 반드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6) 만물은 서로 돕는다

- 아나키즘은 세상 만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고 그 각각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본다. 그런 가치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정확히 파악할 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찾을 수도 있다. 아나키즘은 세상 만물이 서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실상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혜택들은 과거의 인류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이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한 혜택이나 편의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제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없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을 터이다. 그리고 발명을 실제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없다면 발명들은 과학자의 머리 속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은 터무니없는 폭력이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어떤 발견이나 발명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 만물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하고, 지금 현재의 생명만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도 누려야 하는 공동의 자산일 뿐이다.

- 물론 개인의 잘남이 무시되는 건 아니다. 그런 잘난 능력이 꼭 한 사람만을 위해 사용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다르다.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자유는 단지 고립된 개인의 자유, 특히 개인의 무한한 소유를 보장하는 자유일 뿐이다. 하지만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는 의미의 자유이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바쿠닌의 말처럼 아나키즘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이의 자유를 추구한다.

- 이처럼 아나키즘에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평등은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처럼 이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는 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은 서로 춤추며 연관되어 있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유는 나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내 자유와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한국의 아나키즘(약사)

(1) 국내 아나키즘 수용의 디딤돌

- 노자, 장자 등의 중국사상.
- 대동사상: [예기]에서 유래된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이나 반상귀천, 남녀의 신분적 차별이 없는 대동계를 조직('천하공물설'). 후기로 가면 대동단이 사회주의의 실행을 강조했다. 1922년 4월 김좌진의 통일당 강령에도 대동사회 실현이 들어간다. 대동사상은 민본주의와 아나키즘을 결합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 농경사회의 문화적 전통: 계, 두레 등.

(2) 국내 아나키즘의 소개

- 1880년대부터 외국 아나키스트들의 테러활동이 신문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 1900년대부터는 일본 유학생과 한국의 일본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아나키즘이 전파되었다.
- 1910년을 전후 일제 강점이 확고해지면서 개화나 서구화, 근대화보다 민족해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고 사회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 1919년 3·1운동 이후 아나키즘을 비롯한 사회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1920년에는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에스페란토어가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 1921년부터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실천하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단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체명	시기 (연·월)	활동 지역	회원수	주요활동	
흑로회	1921	서울	박열이 일시 귀국하여 구성		곧 해체
흑색청년 동맹	1921		신채호 등이 결성	대구노동친복회 지도 친일요인 테러계획	1924년 해체
흑기연맹	1925.3	서울, 충주	서상경, 홍진유 등 10명	취지서, 강령, 창립대회 계획	1925.5 검거
진우연맹	1925.9	대구	서동성, 방한상 등 15명	대구노동친복회 지도 친일요인 테러계획	1926.5 검거
함흥 정진청년회	1927.7	함흥	김신원, 곤수옥 등 80명	함흥자연과학연구회 조직 자유노조, 소년회 조직	

본능아연맹	1927.7	원산	이항, 한하연, 조시원 등	청년노동단체 지도 공산계와 대립	
관서흑우회 2)	1927. 12.22	관서 지방	이홍근, 최갑룡 등 20명	농촌운동사, 노동조합 조직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 맹 ³⁾ (1929. 11) 결성	
자유회	1927.8.8	강원 이천	김영 등	청년단체 지도	
창원 흑우연맹	1928.5	창원	조병기, 손조 등	독서구락부 조직	1928.8 검거
단천흑우회	1929.4	단천	김용삼, 조중복 등	청년노동단체 조직	
충주 문예운동사	1929. 2.18	충주	서상경, 권오순 등 5명	출판사 설치	1929.3 검거
안주흑우회	1929.4	안주	김일대, 안봉연 등	사회사상연구그룹 조직	
우리계	1929.5.5	제주	고병화, 조대수 등 10명	독서토론회 개최 운동자금 공동출자	

- 이런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야학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아나키즘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1920년대 농민운동과 1930년대 농민조합운동에도 아나키즘이 영향을 미쳤다.

(3) 조선노동공제회

- 1920년 4월 결성된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단체로, 기관지인 『공제』를 발행해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을 개했다. 주요 필자인 유진희(兪鎭熙)는 크로포트킨의 핵심이론을 생산자의 정치와 애의 정치, 호상부조(상호부조)의 정치로 소개했다.

- 당시 <조선노동공제회> 내에는 고순흙과 같은 아나키스트 외에 사회주의 운동그룹으로 서울파와 화요파, 북풍파가 대립하고 있었다(전명혁 2006, 241). 그리고 이런 갈등은 신간회 내부에서도 존재했고, 불세비키 그룹, 레닌주의 그룹, 계급투쟁 그룹, 코문니스트 그룹, 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활동가들이 논쟁을 벌였다(최규진 1997). 특히 신용하는 <조선노동공제회>를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 의거해서 支會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한 중앙집중적 조직”(신용하1986, 96)으로 정의하는데, 그럴 경우 <조선노동공제회>의 성격을 어느 하나의 이념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주의 세력을 아나키즘과 대립되는 하나로 파악할 경우 당시의 다양한 논쟁지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4) 일본 내 한인 아나키즘 운동

2) 선언문에서 “적색 개량주의 일파,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는 대중을 바른 길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

3) 그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국가제도를 폐지하고 코뮌을 기초로 한 자유연합적 사회제도를 건설할 것, 2. 현재의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분산적 산업조직으로 개혁할 것. 3. 현재의 계급적, 민족적 차별을 철폐하고 전 인류의 자유, 평등, 우애의 사회를 건설할 것”

- 1880년부터 일본의 광산촌이나 방적 공장에 한인들이 취업했고, 1900년대 이후에는 철도공사나 수로공사 등에 한인들이 취업하기 시작했다.

- 1910~1918년의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소농민층이 몰락하면서 국외로 대거 이주했고, 1925년에 이르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의 수가 13만 6,700여 명에 달했다. 이 수는 점점 늘어나 그 후 10년간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오사카는 1910년대부터 항만 공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일손이 부족하였고, 1923년부터 제주와의 직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제주도민의 도일이 급증해 1925년부터는 전체 한인의 25~32%가 집중적으로 거주했다.

- 초기의 한인 단체는 대개 기독교에서 후원한 유학생들의 모임이나 지역별 친목단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5년에 결성된 동아동맹회(東亞同盟會)와 1917년의 동양청년동지회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넘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식민 통치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김철수와 최익준(崔益俊)·하상행(河相衍) 등은 1916년 중국인 황카이밍(黃介民)과 대만인 평휘잉(彭華榮) 등 3개국 청년들을 모아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을 결성했다. 동아동맹회와 동양청년동지회 활동을 주도한 김명식(金明植)과 이달(李達) 등은 학우회의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과 『동아시론東亞時論』(뒤에 『혁신시보革新時報』로 개제)을 발간했다. 특히 이달은 『동아시론』(제 2권 1호)에 저명한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의 「정복의 사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 제일 유학생들이 조선에 귀국해 가진 강연회에서도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주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1920년 5월 1일 종로청년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 1회 강연회에서 김명식은 「부조와 경쟁」이란 제목으로 노동의 가치와 상호부조의 원리에 대해 소개했다. 조선유학생학위회가 1921년 7월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는데, 이정운李廷允은 「호상부조론」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명식·이성태李星泰 등의 제일 유학생들이 주도한 <신생활사>는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단체로 평가된다.

- <서울청년회>가 1921년 3월 '생존경쟁 대 상호부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주최측은 "인류 생존의 원칙에 대한 오인誤人의 사상은 2대 조류로 분열되었나니, 즉 상호부조와 생존경쟁이 이것이라" 하면서, 이 '극렬한 사상의 전쟁'에서 청년 남녀의 각성을 위해서는 "이 2대 사상 중 일자의 몰락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생존경쟁론을 극복할 대안 이념으로 상호부조론을 부각시켰다. 특히 청년연합회 취지서에서는 상호부조와 함께 아나키스트들의 또 다른 이념인 '자유연합주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취지서 제2항을 살펴보면, "장단상보長短相補하며 유무상조有無相助함이 곧 사회 존립 발달에 필요한 일이니, 우리 각 청년 단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보 상조하여야 가히 청년 단체의 공업共業을 완성할지니라"고 규정하면서 "연합 단체는 중앙 연합기관으로 존재하고, 각 청년 단체는 각자 독립단체로 존재하며, 또한 연합단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我聲』 1호) 자유연합의 조직운영원

리를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서울청년회>의 주요 인물이던 김사국(金思國)도 한 잡지에서 “오늘날은 곧 상호부조의 평화 시대”라고 규정하고 “생존경쟁이 불천불역不遷不易의 진리라 하면 나는 어디까지든지 불복하고 정의 인도에 공소控訴·상고上告까지라도 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경제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머리 위에는 광명의 빛이 오지 않을 줄 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생존경쟁이 아니라 상호부조에 입각해 자본주의사회의 경쟁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공산주의자인 정백(鄭栢)은 슈티르너의 사상을 또 다른 사회주의 잡지인 『신생활』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 1921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김약수가 일본에서 <흑도회> 결성했고 1922년 풍뢰회(風雷會)를 결성하고 흑우회로 개칭했다.

- 1925년 도쿄의 사회주의자들이 <일월회>를 결성했다. 일월회는 결성 이후 노동자 조직의 전국적인 연대를 꾀하기 위해 조선노동동맹회 재건에 주력했고 그 결과 1925년 2월 대중단체로서 12개 단체 8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재일노총이 결성되었다(1년 후인 1926년 10월에는 9,900명으로 급성장).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이 운동에 결합하지 않았고 그 이후 세가 악화되었다.

(5) 중국 내 한인 아나키즘 운동

- 1920년대에 이회영, 김종진, 류자명, 정화암 등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적극적인 활약을 벌였다.

- 1919년 11월 <의열단>이 설립되었다. 투쟁방법은 주로 테러였으며 김원봉은 “우리가 광복운동을 시작한 이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았으나 얻은 바가 무엇이나 조선총독을 죽이기를 5~6명에 이르면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을 것이고 동경에 폭탄을 터트리 매년 2회이상 놀라게 하면 그들 스스로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김원봉의 의열단은 유자명의 영향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적 테러활동에 아나키즘적 논리를 갖추게 되었고, 의열단의 이론적 요구로 1922년 겨울 유자명이 김원봉과 신채호를 연결하여 「의열단선언문」이 탄생했다.

- 상해에 있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러시아인·중국인과 함께 삼이협회(三二協會)를 조직했다. 삼이협회의 삼(三)은 무정부·무종교·무가정의 삼무(三無)를 의미하고, 이(二)는 “자기의 장처(長處)와 본능에 실근(實近)”함을 의미했다. 이 단체는 아나키즘 선전작업을 전개하기 위해, 러시아인을 일본 도쿄에 파견하여 <크로포트킨>

이라는 아나키즘 선전책자를 중국 및 한국인 노동자 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 1924년에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등이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했다.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 한편으로 크로포트킨의 농업론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농촌을 건설하고 다른 한편으로 항일운동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와 협동전선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가졌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동경작, 공동소비하는 코문식의 사회를 구상했다. 1927년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나코 코문주의를 지향했다.

- 1929년에 이을규 등이 북만주 해림에서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고 김좌진이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해 아나키스트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그 당시 북만주의 신민부는 무장투쟁노선을 주도하는 군정파와 일상적인 정착을 시도했던 민정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군정파를 주도하던 김좌진은 1929년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유림, 김종진, 이을규의 도움을 얻어 농촌에 자치조직을 건설하려 했다. <한족총연합회>의 간부들은 상호부조와 자유연합이라는 아나코-코문주의의 조직원리에 따라 조직을 구성했고 농무협회를 만들어 농촌 자치조직을 구상했다. <한족총연합회>는 “국가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도모한다”는 민족주의적 강령을 내세웠지만 그 사업정강에서 토지공동조득(租得)장려, 공농제(共農制)의 적극적 실시, 지방자치제 확립, 각 지방자치체와 상호연락, 공동판매, 공동소비조합설치의 적극 장려 등 아나코-코문주의적 원리를 담았다.

- 1930년 이회영, 유자명, 정화암 등 상하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했다. 창립선언문은 “세상만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새 사회는 ‘각인은 필요에 따라 취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자유공산사회이어야 한다. 그 사회에서는 이미 금전이 필요없게 되어 소멸될 것이며, 농업과 공업이 과학적으로 종합되어 인간에게 이롭고 유용한 것만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농촌의 형태를 갖춘 도시, 도시다운 편리함을 지닌 농촌으로 변할 것이며, 이들이 자유로이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지구상의 예술사회가 될 것이다. 각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과정을 거쳐 합의에 따라 선택되는 사회,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회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고, 각자가 마음껏 스스로의 개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며, 그 누구도 마음껏 스스로의 개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며, 그 누구도 노동을 기피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건설할 새 사회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가 침식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와 같이 노동이 예술이요, 예술이 곧 노동이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노동은 환희로 변하고 예술은 삶의 활기를 띠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3. ана키즘의 현실성

(1) ана키즘과 지역공동체

- 과거 미국에 정착한 이탈리아 ана키스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네 가지 범주, 즉 ана키스트-꼬문니스트(anarchist-communist), ана코-노동조합주의자(anarcho-syndicalist), ана키스트-개인주의자(anarchist-individualist), 하이픈(-)이 없는 그야말로 소박한 ана키스트(just plain anarchist)로 나뉘었다(이 구분 역시 엄격한 것은 아니다).

아나키스트-꼬문니스트는 푸리에나 크로포트킨처럼 공동체의 배치를 통해 국가와 자본을 대체하는 대안을 꿈꿨고, ана코-노동조합주의자는 스페인의 CNT처럼 노동 조합운동을 통한 대안을 꿈꿨으며, ана키스트-개인주의자는 공동체와 조합 모두를 의심하며 슈티르너처럼 자율적인 개인의 행동만을 믿었고, 소박한 ана키스트는 독단적인 교리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받아들여 려 했다.

- 전 세계의 다양한 ана키즘/아나키스트운동이 (유명한 파리꼬문에서 느껴지듯이) 지역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지만, 특히 미국에 자리를 잡은 이탈리아계 ана키스트들은 지역공동체, 지역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ана키스트들은 자신들이 반대하고 혐오했던 체제 속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 했다. 즉 가만히 앉아서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 자본주의 속에 틈을 만들어 ана키스트의 삶을 살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아주 작은 요새(enclave), 즉 자유의 조그만 거점을 만들고 그것을 퍼뜨리고 늘려서 전국과 세계를 빨아들이려 했다.

- 그리고 이탈리아계 ана키스트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생활했지만 일상에 뒤틀림을 줘서 삶의 활력을 추구했다. 이탈리아계 ана키스트들은 자신들의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극모임을 가졌고 강연과 콘서트를 즐겼다. 대표적인 활동인 피크닉(picnic)은 가족들이 야외로 여행을 나가 먹고 마시며 춤추는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운동을 위한 모금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 비슷하게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ана키스트들도 여러 대안 정착지와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들은 도서관을 세웠을 뿐 아니라 프루동의 이론을 본 따 상호은행과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 이처럼 과거 ана키스트들의 운동을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지역운동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도서관운동, 마을신문, 지역화폐운동, 지역복지운동 등 현실과의 매개고리는 여럿이다.

- ана키즘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지역이라는 장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다. 오히려 ана키스트들은 ана키즘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그래서 국가

라는 권력체를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기를 원했다. 허나 그런 미래가 도래하게끔 대중이 힘을 기르고 결집하기 위해, ана키스트들은 지역 속으로 들어가 대중과 함께 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2) 아나키즘과 주민운동: 아나키즘과 주민운동의 충돌, 아니면 접붙이기?

- 주민운동과 아나키즘이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둘이 충돌하는 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실의 지역운동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등 제도 영역과의 연계, 또는 제도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형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의 권력구조를 배타적으로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남긴다.

- 사실 거대한 권력은 대중의 통제를 벗어나기에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권력은 크게 뭉쳐질수록 통제를 벗어나고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억압하려 들기 때문이다. 허나 사회를 벗어나 유일자로 살지 않는 이상 일정한 권위체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쉬한이 말하듯, “아나키즘은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권위주의의 씨앗을 내포한 관료제를 낳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즉각 어리석은 노예,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의지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바쿠닌의 말과,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구조는 이처럼 이론과 실천이 철저히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크로포트킨의 얘기는 유심히 들을 만하다.

- 사실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거대한 국가보다 탈중앙화된 공동체들에서, 그런 공동체들의 연방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그런 선까지 합의를 볼 수 있다면, 현실의 주민운동은 아나키즘과 충돌하지 않고 접목될 수 있다. 주민운동이 목표하듯이 지방자치제를 더욱 내실화해서 지역의 자율권을 넓힌다면 궁극적으로 연방주의(federalism) 형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권력을 재구성해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추천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장치를 도입한다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생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 또한 ана키스트/아나키즘의 권력론은 주로 권력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그것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효용을 가진다. 사실 현대의 권력은 과거의 왕처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라기보다 일종의 관계망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다. 따라서 실체적 권력지배에 맞서 대안을 생성하려면 아나키즘의 권력론은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주민운동과 아나키즘의 접합은 그런 고민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 그리고 반대로 아나키즘/아나키스트는 자칫 폐쇄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주민운동

의 정체성을 열게끔 자극할 수 있다. 한 민족의 자유와 단 한 명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훼손도 나의 권리와 인간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지상의 한 인간이라도 노예상태에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는 바쿠닌의 말에서 드러나듯, 자치는 모든 사람의 것일 때에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아나키즘이 품고 있는 그 정열은 주민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가게끔 자극할 것이다.

-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중앙정치인들의 '상생(上生)'이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고 새로운 길로 이끄는 '상생(相生)'은 지역운동과 아나키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3) 아나키즘과 삶의 인문학

- 아나키즘은 대중 속에서만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상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나키스트들이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완벽하게 짜여진 이론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듬성듬성 공백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 P. Kropotkin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훗날 나는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할 때 나보다도 훨씬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농민이나 시골 출신 노동자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소위 '민중적 언어'를 많이 쓰면서 '농민의 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민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만 빌려왔기 때문이다. 농민과 대화하거나 농민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러시아의 농민도 외국어만 잔뜩 쓰지 않는다면 지식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다. 평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과학적, 사회적, 자연적 총체에서 추출된 일반화가 아니다.”

- 지식인들이 대중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 단순히 말만 빌려와서는 안 된다. 그들이 느끼고 꿈꾸는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다가서야 한다. 비슷하게 러시아 혁명 직후 마흐노 N. Makhno는 농노들에게 짧고 분명한 연설을 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우리는 지주들과 그들의 마름들을 따랐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여러분끼리 땅을 분배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동등한 관계에서 일하십시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 평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당시 러시아 농노들에게 이 연설은 분명 남달랐을 것이다. 짧고 분명한 이 몇 마디 연설은 전문 용어가 뽁뽁한 이론서 몇 권을 읽는 것 몇 농노들을 더 자극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는 몇몇 탁월한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아니라 직접 그 세상을 일구어 나갈 대중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대중의 삶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 그렇기에 아나키즘은 삶을 부정하거나 그것에서 도피하지 않고 직접 맞닥뜨릴 것을 주장했다. 아나키즘을 대표하는 원리 중 하나인 '직접행동'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지금까지 직접행동은 아나키즘이 테러와 폭력을 외쳤다는 증거로 여겨져 왔다. 분명 직접행동은 때때로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직접행동의 의미는 파괴나 살육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욕망과 의지가 반영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이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 직접행동은 삶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의미한다. 직접행동은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 강요하는 '소외된 삶',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자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고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삶을 긍정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고 같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언제라도 연대할 자세를 갖춘 삶, 아나키즘이 지향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삶은 폭력적이지 않고 즐거울 수 있다. 무까이 꼬오는 얘기한다. "비폭력 직접행동이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폭력 상황의 일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생산과 노동이다.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삶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가운데, 그러한 힘은 명료하게 나타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룬다. 당연하고 별것도 아닌 발현 그 자체인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생산과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고, 셋째로 일상생활을 즐기는 창조활동으로서 이른바 노래, 춤, 축제 등으로 확대되는 놀이이다. 직접행동이란 주어진 것을 누리는 오락만이 아니라 인민 스스로가 만드는 창조행위이기 때문이다."

- 아나키즘은 꾸역꾸역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이 스스로 삶을 바꾸기 위해 일어설 것을 외친다. 그 외침은 이데올로기나 선전이 아니라 아나키스트들의 삶을 통해 전파된다. 삶을 통한, 행동을 통한 선전(propaganda by deed)은 '주입'이 아니라 '공명(共鳴)'을 일으킨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온다. 이런 생각은 관념적인 당위가 아니다. 1936년 스페인 혁명 때 국제의용군으로 자원했던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서술했다. "상점들은 대부분 초라하고 진열대의 반은 비었다. 고기는 귀했다. 우유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 석탄, 설탕, 석유는 부족했다. 그 가운데도 빵 부족은 정말 심각했다. 이 시기에도 빵을 구하려는 줄은 종종 수백 미터씩 늘어서곤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만족해했고 희망이 넘쳤다. 실업은 없었다. 생활비는 여전히 매우 낮았다. 눈의 띄게 곤궁해 보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시를 제외하면 거지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혁명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갑자기 평등과 자유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있었다. 인간은 자본주의 기계의 톱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엄숙히 천명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이발사들은 대부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 중요한 것은 당위가 아니라 삶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상도 조금씩 다가설 때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혁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혁명에 있어 크로포트킨의 얘기는 귀담아 들어봄직 하다. “혁명은 성공한 뒤의 정치적 보상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가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의 행동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혁명은 반드시 실패한다. 불행하게도 지도자들은 그 주요한 문제를 망각하고 혁명을 군사적 전술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혁명가가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데 실패한다면 어떠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진정한 혁명은 굴종하는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자율적인 노력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삶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담고 있는 사상이 아나키즘이다.

제대로 된 혁명

D.H.로렌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쫓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일이란 얼마나 재미있는가?

노동자 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 노동자를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중지부를 찍자!
일은 재미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을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

- 끝 -

- 공부 자리를 준비하며 -

국가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생존’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시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틈새’, ‘가장자리’, 또는 ‘밑바닥’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民)의 움직임들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양한 모습의 풀뿌리운동, 협동운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지역과 영역에서 대안사회를 향한 길 찾기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생존에 기반한 경쟁과 배제가 아니라 상호부조에 기반한 협동과 보살핌의 원리야말로 인류 역사에 축적된 지혜이자 자연의 법칙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그것을 직접 실천을 통해 보여 주고자 했던 아나키스트(anarchist)들의 사상과 실천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따뜻한 세상을 꿈꿨던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 자율적이고 자치적이며 자립적인 풀뿌리공동체를 모색하는 우리들에게 ‘오래된 새길’로서 많은 점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포럼은 ‘모심과살림연구소’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풀뿌리자치 공부모임’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풀뿌리자치 공부모임’에서는 올해 4월부터 15명 정도의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격주로 풀뿌리, 지역(운동), 지방자치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오고 있습니다.